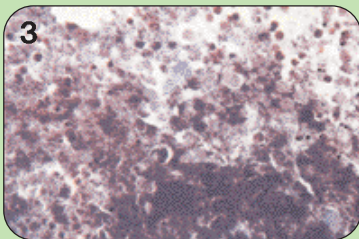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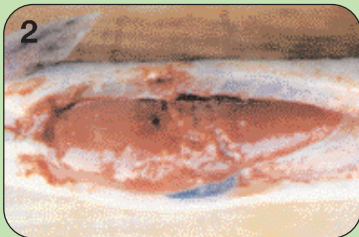


뱀장어의 에드워드병



본 병은 새끼부터 성어까지에서 나타나는 세균성 질병으로, 약 25℃ 이상의 수온기에 발생하나, 온수 양식에서는 1년중 나타난다.

[증상] 어린 단계의 뱀장어에서는 간장부분 및 항문 주위가 빨갱게 부풀어 오른다(사진 1). 그 이상의 뱀장어는 항문 부위가 빨갱게 부풀어 오르고, 복부의 발적, 간장과 신장에서 구멍이 생긴다. 부검적으로는 간장(사진 2)과 신장에 농양 및 궤양이 많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원인] 본 병은 장내세균과에 속하는 *Edwardsiella tarda*의 감염에 의해 발병한다. 이 균의 성상은 그람음성(단간균)이고, 증식온도는 15~42℃로 30℃ 부근이 최적온이다. 발육가능 pH는 5.5~9.0, 식염농도는 0~4%이다.


[대책] 가온지에서 발병한 때는 수온을 20~21℃까지 내려주고 발병중 식욕이 있을 때는 아쿠아-울트라, 아쿠아-옥소린 등이 유효하다. 실뱀장어에 실지렁이를 투여중이면 항균제로 약욕을 행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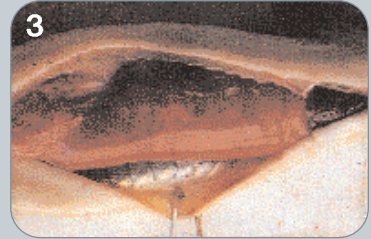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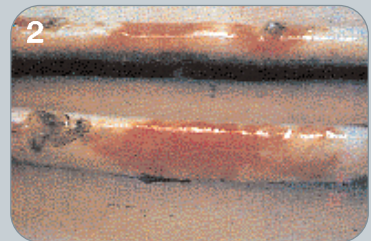


본 병은 노지의 못에서 양식하던 때의 3~6월경에 걸쳐 유행하던 대표적인 세균성 질병이었다. 수온 25℃이상의 하우스 가운데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증상] 방양 직후의 새끼에서부터 성어까지 크기에 관계없이 발생한다. 외부 증상으로 등지느러미와 가슴지느러미의 발적이 특징이며, 증상이 심해지면 복부나 항문의 발적과 출혈반(出血斑)이 관찰된다(사진 1, 2). 내장 부위에서는 장관에 심한 충혈과 간장의 응혈(사진 2)이 자주 관찰된다. 새끼 뱀장어에서 나타나는 증상은 등지느러미와 가슴지느러미의 모세관 출혈로, 육안으로는 보기 힘들다. 저배율의 현미경으로는 확인할 수 있다(사진 4). 발생은 수온의 일변화가 심한 봄철이나 먹이 불임 개시후의 10일간이나 수온의 급격한 변화 등에 생김으로 물곰팡이의 기생이 함께하는 수도 많다.

[원인] 그람 음성간균인 *Aeromonas hydrophyla*의 감염 때문이다.

[대책] 아쿠아 울트라, 아쿠아 오스리 등의 하균제를 겉구 투여하면 효과가 있다.  로 가온한다.



뱀장어의 기적병